■ 민족문화연구 제99호(2023.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79-215.
http://doi.org/10.17948/kcs.2023..99.179

# 일본 내각문고 소장 寫本『梅月堂集』의 문헌적 성격과 위상*

차충환(車充煥)**

목 차

1. 머리말
2. 내각문고본의 구성과 서지
3. 내각문고본의 문헌적 성격과 위상
4. 원작과 새 작품 소개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에 소장된 사본『매월당집』의 문헌적 성격과 위상을 고찰하였다. 검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각문고본『매월당집』은 詩藁와 文藁, 別集, 遊錄 등 각각 독립성을 지닌 별책이 하나의 전집으로 묶인 것이다. 책에 찍혀 있는 인장을 통해 볼 때, 18세기 말이나 19세기 초에 일본 창평판학문소에 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내각문고본 시고와 문고를 을해자본『매월당집』, 경진자본『매월당집』 등과 비교해 보면, 내각문고본은 을해자본을 수용・증보한 사본이고, 경진자본은 내각문고본 계열 사본의 정고본을 바탕으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각문고본은 殘片만 남아 있는 을해자본의 실제 구성과 내용을 추정하고 경진자본의 성립 과정을 알려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셋째, 내각문고본의 '유록'도 원고본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한문학회 동계학술대회(성균관대 국제관, 2023.1.27.)에서 구두 발표한 필자의 「일본 내각문고 소장 寫本『梅月堂集』소개 및 고찰—『林泉佳話』소개를 중심으로」를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다.

**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단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여기에는 김시습의 자필 유고본에 실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넷째, '감흥시'의 원작은 11수가 아니라 13수였다. 11수로 된 것은 경진자본을 간행하면서 두 수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원작 13수는 1465년 무렵 김시습의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을 잘 보여준다. 그 당시 김시습은 세조가 지배하던 당시의 현실은 인정하되, 세조 측근의 신하들에 대해서는 강한 적대 의식을 표출했다.

내각문고본 『매월당집』에는 새 작품으로서 비구니의 생애를 기록한 글이 있고, 그동안 서명만 알려졌던 『임천가화』도 별집으로 삽입되어 있다. 이들은 불교와 관련된 김시습의 생평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거나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주제어: 김시습, 내각문고본 매월당집, 을해자본 매월당집, 경진자본 매월당집, 문헌적 성격, 감흥시, 세조, 임천가화.

## 1. 머리말

김시습의 詩文은 陰崖 李耔(1480-1533)가 수습한 김시습의 유고본이 奇自獻(1567-1624)에까지 전승된 바 있고, 그사이에 동활자로 을해자본 『매월당집』과 경진자본 『매월당집』이 간행된 바 있다. 또한 「유관동록」과 「관동일록」·「명주일록」이 각각 수록된 목활자본 『매월당시고』, 윤춘년이 간행한 목활자본 『유관서관동록』, 기자헌이 간행한 목판본 『매월당시사유록』 등이 간행된 바 있고, 을해자본 『유호남금오록』이 간행된 사실도 확인된다. 그리고 1927년경에는 김시습의 후손에 의해 연활자본 『매월당집』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판본이 간행되었고, 그에 비례하여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판본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寫本의 경우, 음애 수습본은 현전하지 않으며, 을해자본을 비롯하여 여러 활자본과 판본의 저본이 되었을 사본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 국내에 알려진 사본은 일부 작품을 활자화한 宋錫夏 소장본, 경진자본 『매월당집』을 전사한 규장각 소장 『매월당집』, 역시 경진자본을 필사한 연세대 소장 『매월당집』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에 소장된 사본 『매월당집』의 존재가 학계에 보고되었다.[1] 이 사본은 을해자본, 경진자본, 목활자본 등 초기

1) 차충환, 「일본 내각문고 소장 寫本 『梅月堂集』 소개 및 고찰—『林泉佳話』 소개를 중심으로」, 『2022년

활자본의 형성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뿐 아니라, 그동안 서명만 알려져 있던『林泉佳話』가 별집으로 실려 있고, 또 김시습 연구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도 수록되어 있으며, 원작의 모습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작품도 실려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를 요하는 자료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내각문고 소장 사본『매월당집』의 문헌적 성격을 자세히 살펴서 그것이 매월당 시문집의 전승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원작의 모습과 새 작품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겠다.

## 2. 내각문고본의 구성과 서지

내각문고본은 다음과 같이 총 9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내각문고본『매월당집』의 구성

| 冊 | 제첨 | 권 | 권수제 | 판심제 | 장수 |
|---|---|---|---|---|---|
| 1 | 梅月堂集 一 文藁 一之二 | 1 | 梅月堂集 卷之一 文藁 | 梅月堂集 文一 | 22장 |
| | | 2 | 梅月堂 文藁 卷之二 | 梅月堂文藁 二 | 38장 |
| 2 | 梅月堂集 二 文藁 三之五 | 3 | 梅月堂集 卷之三 文藁 | 梅月堂文藁 三 | 10장 |
| | | 4 | 梅月堂集 卷之四 文藁 | 梅月堂文藁 四 | 19장 |
| | | 5 | 梅月堂集 卷之五 文藁 | 梅月堂文藁 五 | 37장 |
| 3 | 梅月堂集 三 文藁 六之八 | 6 | 梅月堂集 卷之六 文藁 | 梅月堂文藁 六 | 24장 |
| | | 7 | 梅月堂集 卷之七<br>(권말:梅月堂集 卷之七 文藁) | 梅月堂文藁 七 | 14장 |
| | | 8 | 梅月堂集 卷之八 文藁 | 梅月堂文藁 八 | 16장 |
| 4 | 梅月堂集 文 別集 四 | | 梅月堂文藁 卷 別集/林泉佳話 | 梅月堂文藁 別集 | 34장 |
| 5 | 梅月堂集 五 詩藁 一之二 | 1 | 梅月堂詩蒿<br>('藁'의 오류/권말<br>:梅月堂集詩藁卷之一) | 梅月堂詩蒿 | 39장 |
| | | 2 | 梅月堂集卷之二 詩藁 | 梅月堂詩蒿 | 33장 |
| 6 | 梅月堂集 六 詩藁 三之四 | 3 | 梅月堂集詩藁 卷三 | 梅月堂詩藁 三 | 40장 |
| | | 4 | 梅月堂集卷之四 詩藁 | 梅月堂詩藁 卷四 | 37장 |

한국한문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22년 한국한문학회 동계학술대회(성균관대 국제관), 2023.1.27.

| | | | | | |
|---|---|---|---|---|---|
| 7 | 梅月堂集 七 詩藁 五之六 | 5 | 梅月堂集詩藁卷之五 | 梅月堂詩藁 卷五 | 29장 |
| | | 6 | 梅月堂集卷之六 詩藁 | 梅月堂詩藁 卷六 | 36장 |
| 8 | 梅月堂集 八 詩藁 七之九 | 7 | 梅月堂集卷之七 詩藁 | 梅月堂詩藁 卷七 | 23장 |
| | | 8 | 梅月堂集卷之八 詩藁 | 梅月堂詩藁 卷八 | 32장 |
| | | 9 | 梅月堂集卷之九 補遺<br>(권말제:梅月堂集文藁補遺) | 梅月堂文藁 | 7장 |
| 9 | 梅月堂集 九 遊錄 一~四 | | 梅月堂集關東日錄(총40장)-<br>梅月堂集遊湖南錄(총26장)-<br>梅月堂遊金鰲錄(총31장)-<br>梅月堂溟州日錄(총36장) | *「유관서록」,<br>「유관동록」 미수록 | 133장 |

[표 1]에서 확인되듯이, 내각문고본은 詩藁, 文藁, 別集, 遊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고와 문고는 독립적으로 卷次를 나누어 각 8권씩 묶었고, 『임천가화』는 별집으로 삽입되어 있다. 그리고 제8책은 시고인데, 산문인 '補遺'가 권9로 들어가 있어 편제가 잘못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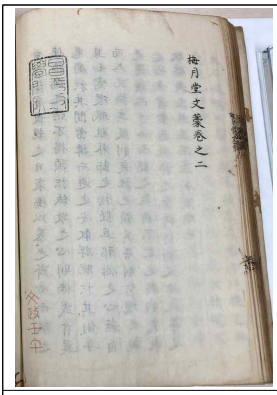
제9책은 편제와 구성이 사뭇 다르다. 표지 다음의 面紙에 '梅月堂詩集'이란 제명이 필사되어 있고, 그다음으로 「관동일록」, 「유호남록」, 「유금오록」, 「명주일록」 등이 권차 분류 없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관동일록」, 「유호남록」, 「유금오록」은 다른 부분과 필체가 다를 뿐 아니라 서체도 다르다. 예를 들어, 책1~책8과 책9의 「명주일록」에서는 '兒'를 '皃'로, '隣'을 '鄰'으로 일관되게 표기했으나, 위 「관동일록」, 「유호남록」, 「유금오록」 등에는 '兒', '隣'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 상호 간에 차이가 있다. 또한 「유금오록」 마지막 면에는 卷末題와 인장이 찍혀 있어 책의 끝부분임을 알 수 있는데, 그다음 장에 바로 「명주일록」이 붙어 있다. 이는 양자가 합철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시고와 문고, 별집, 「명주일록」 등은 한 사람의 필체로 되어 있는데, 「관동일록」, 「유호남록」, 「유금오록」의 필체는 그와 다르다는 점, 「관동일록」 등과 「명주일록」이 합철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필체가 다른 「관동일록」 등은 따로 존재했던 한 묶음의 책이고, 그것을 시고와 문고 등을 필사했던 사람이 「명주일록」과 합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내각문고본은

시고와 문고, 별집, 유록 등 각각 독립성을 지닌 별책이 하나의 전집으로 묶인 것임을 알 수 있다.[2)]

다음으로 사진을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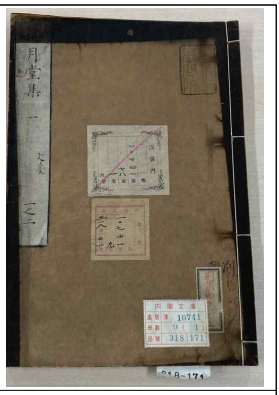
[사진 1]




책1 마지막 면




책1 첫 면




책1 표지

[사진 1]은 책1의 표지, 첫 면, 마지막 면이다. 살펴보면, 표지와 마지막 면 상단에 '昌平坂學問所'[쇼헤이자카 학문소]란 검은색 인장이 찍혀 있고, 마지막 면 하단에는 붉은색으로 '文政壬午'란 인장이 있다. 그리고 첫 면 하단에는 '淺草文庫'[아사쿠사 문고]란 인장이 있다. 표지, 첫 면, 마지막 면의 이러한 모습은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아홉 책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3)]

인장 중 昌平坂學問所는 일본 에도 막부 직할 교육기관으로서, 1797년에 그전에 있었던 교육기관을 개칭하여 사용한 명칭이다. 그리고 文政壬午는 1822년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대략 18세기 말이나 19세기 초반에 창평판 학문소에 귀속된 사본으로 짐작된다. 淺草文庫는 메이지 유신 이후 19세기 말경에 설립된 일본 국립도서관으로서, 소장 자료는 대부분 창평판학문소의

2) 그러므로 책 순서는 별 의미가 없다. 현 내각문고본은 '문고-별집-시고-유록'의 순으로 제책되었지만, '시고-문고-별집-유록'의 순서로 배열하고 책 순번을 매겨도 무방한 것이다. 내각문고본의 이러한 구성은 '유록'을 「매월당시집」 속에 포괄하고 이를 「매월당문집」과 통합하여 권1~권23의 순서로 배열한 경진자본『매월당집』과는 다른 특징이다.

3) 제8책 마지막 장에 '文政壬午' 인장이 없고, 제4책 말미에는 두 개의 인장이 없다. 별집인 제4책의 경우, 뒷표지 안면 상단에 '昌平坂學問所' 인장이 묻어있는 것으로 볼 때, 본래는 인장 두 개가 찍힌 종이가 마지막 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서들이다. 그러므로 '淺草文庫' 인장은 창평판학문소 장서들이 천초문고에 귀속된 이후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每半葉 10행 18자로 필사되어 있는데, 이는 全 9책 모두가 동일하다.

## 3. 내각문고본의 문헌적 성격과 위상

### 1) 내각문고본 詩文藁와 타 간행본의 관계

여기에서는 내각문고본 詩藁와 文藁의 구성을 타 간행본과 비교하면서 내각문고본의 문헌적 성격과 위상을 검토하기로 한다. 비교 대상 간본으로는 을해자본 『매월당집』[4]과 경진자본 『매월당집』[5]을 주로 하되, 목활자본 「관동일록」과 「명주일록」[6]도 참고하겠다. 먼저 [사진 2]를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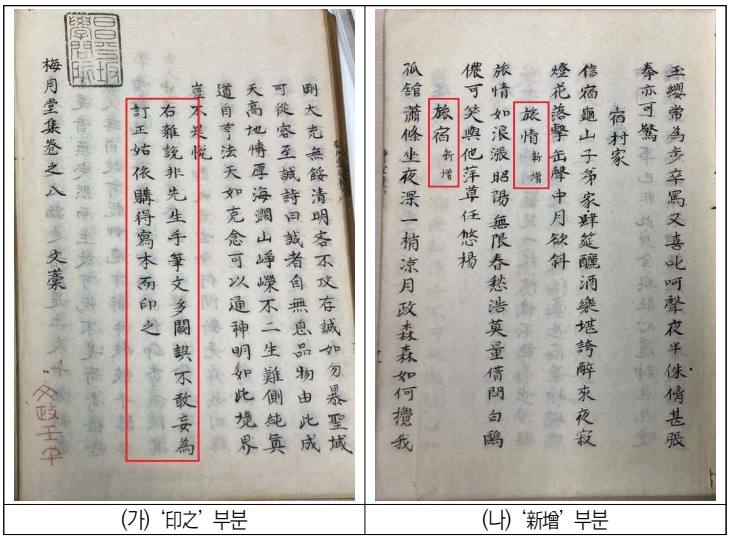
---

4) 을해자본 『매월당집』의 간행 사실은 박철상이 처음으로 밝혔다. 박철상, 「을해자본 『매월당집』 잔편 발굴의 의미」, 『문헌과해석』 27, 문헌과해석사, 2004, 215-235면. 그러나 殘片 한 장만이 남아 있어 자세한 특징을 살필 수는 없다.

5) 경진자본 『매월당집』은 미교정본, 교정본을 포함해 다수의 傳本이 있으나, 그동안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일본 봉좌문고 소장본이다. 그러나 이 봉좌문고본은 국내에서 영인·출판되면서 착간과 누락이 발생하고 "보유"가 빠지는 등 다수의 오류를 노출했다. 그러나 누락 부분과 착간을 보완·수정한 한국문집총간본과 "보유"가 수록된 이우성 편, 『매월당집』(아세아문화사, 1995)을 함께 보면, 간행 당시 경진자본의 온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경진자본 『매월당집』의 간행 과정과 봉좌문고본의 유통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양승민, 「경진자본 『梅月堂集』 간행 과정과 校訂本」, 『한국한문학연구』 52, 한국한문학회, 2013, 457-495면 참고. 본고에서는 한국문집총간본과 대동문화연구원 편 『매월당전집』을 기본 자료로 활용하되, 이들의 텍스트명을 지칭할 때에는 '경진자본' 또는 '경진자본 『매월당집』'이라고 한다.

6) 연세대 도서관 소장. 최근에 박철상은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목활자본 『매월당시고』를 소개한 바 있는데(박철상,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매월당시고(梅月堂詩藁)』에 대하여」, 『매월당시고(梅月堂詩藁)』, 계명대 출판부, 2008, 83-85면), 이 판본은 한 책으로서 권수제는 "梅月堂詩藁卷之二"이고, 수록 작품은 「유관동록」이다. 권수제로 보아 권1은 「유관서록」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연세대 도서관에 『매월당시고』 한 책이 소장되어 있는데[고서(1) 811.19 김시습 매-목], 권5에 「관동일록」, 권6에 「명주일록」이 수록된 목활자본이었다. 살펴보니, 계명대 소장 『매월당시고』와 같은 판본이었다. 이로써 우리는 목활자본으로서, 권1: 「유관서록」(추정), 권2: 「유관동록」, 권5: 「관동일록」, 권6: 「명주일록」 등이 간행된 것은 확인하게 되었다. 만약 권3과 권4의 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유호남록」과 「유금오록」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실물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마도 「유호남록」과 「유금오록」도 목활자본으로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박철상은 위의 논문에서 이겸로의 『山氣文庫目錄』에 목활자본 『매월당시고』 1책(권4)이 저록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 책이 권4인 것으로 보아 「유금오록」일 가능성이 있다. 아무튼 연세대 소장 『매월당시고』 역시 내각문고본의 특징을 살피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사진 2]



(가) '印之' 부분 (나) '新增' 부분

[사진 2]의 (가)는 내각문고본 文藁 권8의 말미 부분이다. (가)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右雜說非先生手筆文多闕誤不敢妄爲訂正姑依購得寫本而印之"라는 기록인데, 이에 의하면 내각문고본의 필사 저본은 인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위의 구절이 경진자본 권23의 끝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사진 3] 참고). 그렇다면 내각문고본의 저본이 경진자본일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 [사진 2]의 (나)를 보자. 내각문고본 詩藁를 보면, (나)와 같이 시 제목 아래 작은 글씨로 '新增'이라고 적혀 있는 모습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시고 전체에서 총 25곳에 나타난다. '신증'이 표기된 작품 제명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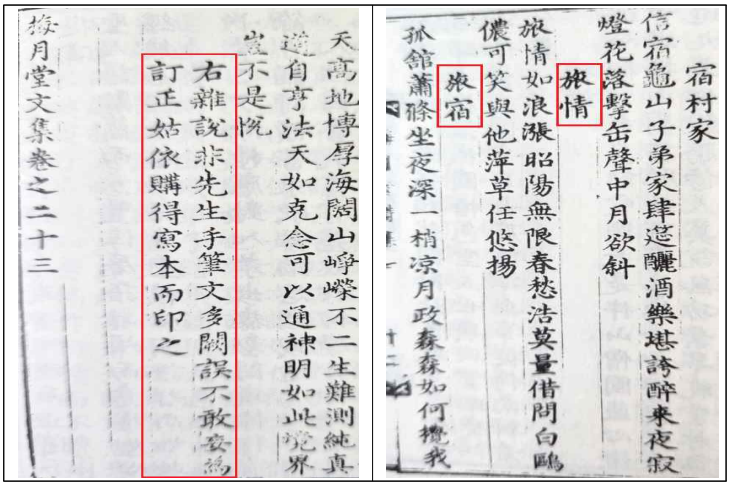
[표 2] 각 권별 '신증' 작품

| | | | |
|---|---|---|---|
| 권1 | 旅情, 旅宿, 屋漏歎, 述古十首/4제 | 권5 | 懶治花塢/1제 |
| 권2 | 讀唐史, 挑燈話舊, 武侯廟, 濂溪室,<br>開窓即事, 樂眞堂/6제 | 권6 | 有感觸事書呈明府三首, 和秋江四首,<br>別秋江, 山中十景/4제 |
| 권3 | 凌虛詞, 送悅上人遊五臺山五首,<br>贈道安字高世, 贈僧, 題熙上人詩軸,<br>習之山居四首, 和惜春詩三首/7제 | 권7 | 無量寺臥病, 挽詞/2제 |
| 권4 | 遊冷泉洞/1제 | 합 | 총 25題 |

'신증'이란 말은 저본을 필사하는 가운데, 저본에는 없는 작품을 새로 추가했기

때문에 붙인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내각문고본에서 신증된 25제의 작품이 경진자본에는 모두 '신증'이란 표시 없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사진 3] 참고). 이것은 경진자본이 내각문고본(또는 그 계열)을 직접 수용한 결과로 본다. 그렇다면 경진자본은 내각문고본보다 후대에 형성된 것이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각문고본의 '右雜說 (…) 印之'라는 기록도 경진자본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진 3]




경진자본이 내각문고본을 후행한다는 것은 시문집의 편제에서도 짐작된다. 양자의 편제는 [표 3]과 같다.

[표 3] 내각문고본과 경진자본의 시문집 편제

| 내각문고본 | | 경진자본 | |
|---|---|---|---|
| 시고 | 권1-권8 | 시집 | 권1-권8 |
| | | | 권9~권14: 유관서록, 「유관동록」, 「유호남록」, 「유금오록」, 「관동일록」, 「명주일록」 |
| | | | 권15: 雜賦 |
| 문고 | 권1-권8 | 문집 | 권16-권23 |

[표 3]에서 확인되듯이, 내각문고본 시고와 경진자본 시집의 구성이 약간 다르다. 우선 경진자본 시집의 권9-권14에 배치된 '유록'이 내각문고본에는 보이지 않는다.[7] 그리고 경진자본 권15의 잡부는 시고의 권8에 들어가 있다. 즉, 시고 권8은 시집 권8과 권15를 합쳐 놓은 형태이다. 만약 내각문고본이

경진자본을 대본으로 필사했다면 이러한 차이를 보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시고 권1-권7과 시집 권1-권7을 비교해 보면, 수록된 작품 내용이 동일하고, 작품 배열도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서로 동일하다. 그런데 배열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도 경진자본의 후행을 짐작할 수 있다. 경진자본 시집 권2를 보면, 첫머리에 "詠史"란 상위 표제를 두고, 그 안에 작품이 '朝二釣叟-魯仲連-詠三諫臣-讀唐史-王莽-漢宣帝-讀光武紀-精忠旗-夷齊三首-哀班師-哀文山三首-四皓翁-臥龍三首-墜橋履-留侯引-哀蘇武二首-看史謾題-詠東國故事(3수)-題江陵玉璧'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중국 인물과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을 먼저 배열하고, 우리나라 고사를 소재로 한 〈詠東國故事〉를 그다음에 배치했다. 그러나 내각문고본 시고 권2에는 〈詠東國故事〉가 〈魯仲連〉과 〈詠三諫臣〉 사이에 들어가 있다. 이는 내각문고본의 착오인데, 내각문고본 필사자가 경진자본을 보고 필사하다가 오류를 범했다기보다는 내각문고본의 오류를 경진자본에서 바로잡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경진자본이 내각문고본을 후행한다는 것은 양자의 '보유' 수록 작품을 통해서도 짐작된다. 내각문고본과 경진자본의 '보유' 작품은 다음과 같다.

- 내각문고본 '보유' 작품: 〈感懷三篇後序〉, 〈靜室銘〉, 〈正菴道人詩卷序〉, 〈定菴道人實蹟讚并引〉
- 경진자본 '보유' 작품: 〈感懷三篇後序〉, 〈靜室銘〉, 〈祭祖父文〉

이러한 차이는 내각문고본이 경진자본을 수용하면서 〈제조부문〉은 제외하고 〈正菴道人詩卷序〉와 〈定菴道人實蹟讚并引〉을 새로 추가했다기보다는, 반대로 경진자본이 내각문고본을 수용하면서 〈正菴道人詩卷序〉와 〈定菴道人實蹟讚并引〉을 제외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경진자본에서 〈正菴道人詩卷序〉와 〈定菴道人實蹟讚并引〉을 제외한 것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들 작품이 비구니의 행적을 기록한 불교 관련 글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사진 2]와 [사진 3]의 관계, 시문집의 편제, '보유'의 차이 등을

7)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각문고본의 '유록'은 따로 편제되어 있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작품이 경진자본의 유록보다 많고, 형성 단계로 보더라도 경진자본의 유록보다는 훨씬 전 단계에 존재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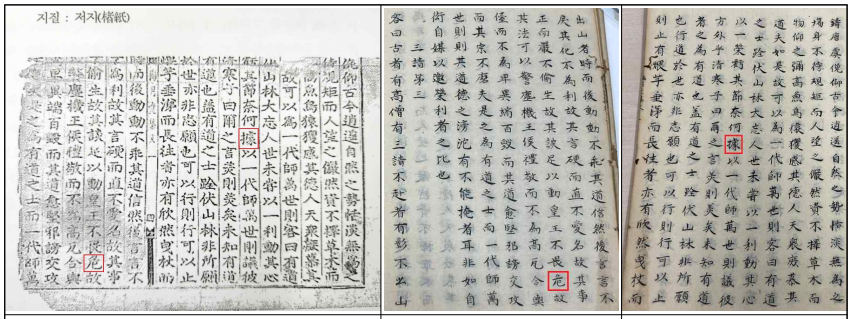
고려할 때, 내각문고본은 경진자본을 선행하는 사본으로서, 내각문고본 이전에 간행된 인본을 저본으로 필사했음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각문고본의 저본은 무엇이었을까.

위에서 살펴본 [사진 2]의 (가)는 文藁의 마지막 권8의 말미에 기록된 것이고 [사진 2]의 (나)는 詩藁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처럼 시고에 저본을 '신증'했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문고 말미에 '印之'라는 기록이 보인다는 것은 내각문고본 시고와 문고 전체가 어떤 저본을 바탕으로 필사했다는 뜻이고, 그것은 印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렇다면 저본인 인본 역시 시고(시집)와 문고(문집)를 온전히 갖춘 책이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는 인본은 을해자본 『매월당집』이 가장 유력하다. 박철상에 의하면,[8] 을해자본 『매월당집』은 명종 연간(1546-1568)에 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殘片의 판심이 '매월당문집 권1, 네 번째 張'의 의미인 "梅月堂集文一四"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매월당집』의 '文' 부분이 적어도 2권 이상 존재했음을 알 수 있으며, '文'이라는 것은 '詩'를 전제한 표기임을 고려할 때, 시와 문으로 나뉘어 편집된 『매월당집』이 을해자로 간행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을해자본 殘片의 체제와 내용이 내각문고본의 그것과 정확히 동일하고 경진자본의 그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사진 4]와 [사진 5]를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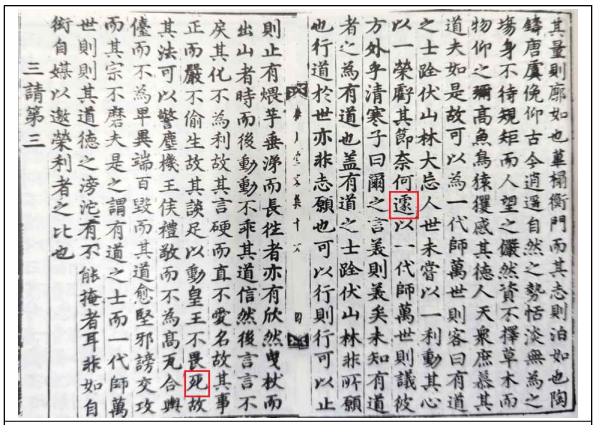
[사진 4]



| 을해자본 잔편[9] | 내각문고본(문고, 권1, 4뒤) | 내각문고본(문고, 권1, 4앞) |
|---|---|---|

8) 박철상, 「을해자본 『매월당집』 잔편 발굴의 의미」, 『문헌과해석』 27, 문헌과해석사, 2004, 215-235면.
9) 박철상, 같은 글, 216면에서 발췌함.

[사진 5]



경진자본(문집, 권16, 4앞뒤)

을해자본 잔편의 내용은 박철상이 위의 논문에서 이미 밝혔듯이, 경진자본 권16, 「雜著」의 두 번째 글인 〈山林第二〉의 제4장 앞뒤의 일부이다. 그런데 이를 내각문고본의 해당 부분과 비교해 보면 [사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장 앞뒤에 배치된 내용과 글자가 완전히 일치한다. 다만, 을해자본에서 각 행별로 위쪽 세 글자와 뒷면의 4행이 마멸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경진자본은 4장 앞뒤의 내용 구성이 을해자본, 내각문고본과는 차이가 있다. 먼저 확인되는 것은 을해자본과 내각문고본 앞면의 첫 행이 경진자본에는 제2행으로 배치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경진자본에서 한 행씩 밀려서 조판되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된 것은 경진자본 권16의 첫 면에 내각문고본에는 없는 '雜著'라는 표제가 한 행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10]

다음으로 [사진 4]와 [사진 5]에 표시된 바와 같이, "據/遽", "危/死"와 같이 두 글자에서 을해자본과 내각문고본은 같고 경진자본은 그와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경진자본이 내각문고본을 후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진자본에서 글자를 바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을해자본의 文集과 내각문고본의 文藁 권1에 배치된 내용이 서로 동일하다는 점, 장의 구성과 내용, 글자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각

10) 을해자본은 확인할 수 없으나, 판의 내용 구성이 내각문고본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雜著'란 말이 없음은 분명하다. 경진자본을 보면 권17에도 '잡저'란 항목이 한 행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각문고본 문고 권2에는 '잡저'란 말이 없다. 이를 근거로 보면, '잡저'란 항목은 경진자본을 만들 때 새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

문고본의 저본이 된 인본은 을해자본 『매월당집』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11]

이상의 논의는 殘片의 비교로 본 을해자본과 내각문고본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것인데, 양자의 관련성을 좀 더 탐구해 보자. 앞에서 살펴본 대로 내각문고본 『매월당집』은 시고 全 8권과 문고 全 8권이 하나로 묶이고, 거기에 별집과 유록이 합쳐져 전체를 이루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만약 을해자본 『매월당집』도 '유록'이 제외된 시집과 문집의 체제라면 내각문고본 시문고와의 관련성은 더 밀접해진다.

결론적으로 을해자본 『매월당집』 역시 '유록'이 제외된 시문집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추정은 같은 추정은 을해자본 『매월당집』을 간행한 사람이 尹春年(1514-1567)이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박철상은 李耔, 朴祥, 윤춘년이 간행한 『매월당집』이 유통되고 있었다는 李珥(1536-1584)의 〈김시습전〉의 기록, 윤춘년이 편집한 시문을 여러 번 송독했다는 李山海(1539-1609)의 〈매월당집서〉의 기록, 윤춘년이 을해자로 『금오신화』, 『詩法源流』, 『醫家必用』 등을 간행한 바 있다는 점, 윤춘년이 목활자로 『유관서관동록』을 간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을해자본 『매월당집』을 간행한 사람으로 윤춘년을 지목했다.[12]

만약 윤춘년이 을해자본 『매월당집』을 간행했다면, 을해자본은 내각문고본의 체제와 동일했음이 확실하다. 윤춘년은 『유관서관동록』을 따로 간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윤춘년은 『유관서관동록』을 간행하면서 『歐陽文忠公集』에 別錄을 둔 예를 따른다고 말한 바 있는데,[13] 이 말은 『유관서관동록』을 『매월당집』의 별록으로 삼겠다는 의미이다. 결국, 윤춘년이 『유관서관동록』을 간행했을 때에 『매월당집』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은 '유록'이 제외된 시문만으로 구성된 문집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내각문고본은 인본인 경진자본을 선행한다는 점, 잔편의 비교로 알게

11) 박철상은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목활자본 『매월당시고』를 소개하면서 "梅月堂集卷二"라는 판심제를 근거로, 이 『매월당시고』가 『매월당집』의 일부일 수 있고, 그렇다면 을해자본, 경진자본 외에 『매월당집』이 하나 더 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박철상,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매월당시고(梅月堂詩藁)』에 대하여」, 『매월당시고(梅月堂詩藁)』, 계명대 출판부, 2008, 83-85면). 그러나 목활자본 문고(문집)의 존재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12) 박철상, 「을해자본 『매월당집』 잔편 발굴의 의미」, 『문헌과해석』 27, 문헌과해석사,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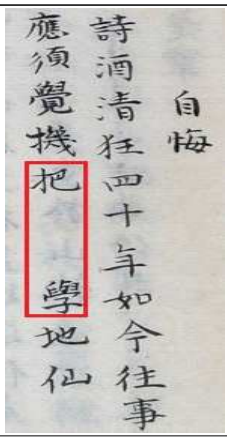
13) 이와 관련된 내용은 윤춘년의 『學音稿』에 있고, 박철상, 앞의 글에서 자세히 고찰했다.

된 것이긴 하나 을해자본 문집의 구성과 내용이 내각문고본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점, 윤춘년이 을해자본『매월당집』을 간행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 체제는 내각문고본의 체제와 동일할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볼 때, 내각문고본『매월당집』은 을해자본『매월당집』을 저본으로 삼아 증보된 것임을 알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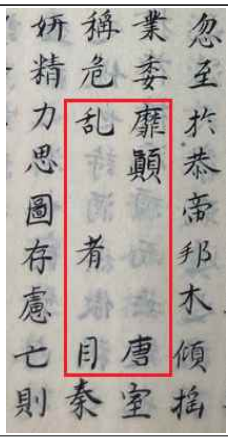
이처럼 내각문고본이 을해자본을 저본으로 했다면, 내각문고본은 을해자본의 실제 구성과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내각문고본 시고에는 '新增'이 된 작품이 다수 존재하는데,[14] 이것은 해당 작품이 새로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 나머지는 저본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의미도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을해자본의 체제와 구성은 내각문고본에 신증된 작품을 제외한 모습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내각문고본을 보면 [사진 6]과 같이 시나 산문의 내용 중에 빈칸이 노출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저본으로 삼은 인본에서 글자가 탈락됐거나 마모되어 판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짐작된다.

[사진 6]



시고, 권1, 〈자회〉 부분



문고, 권3, 〈고금제왕국가흥망론〉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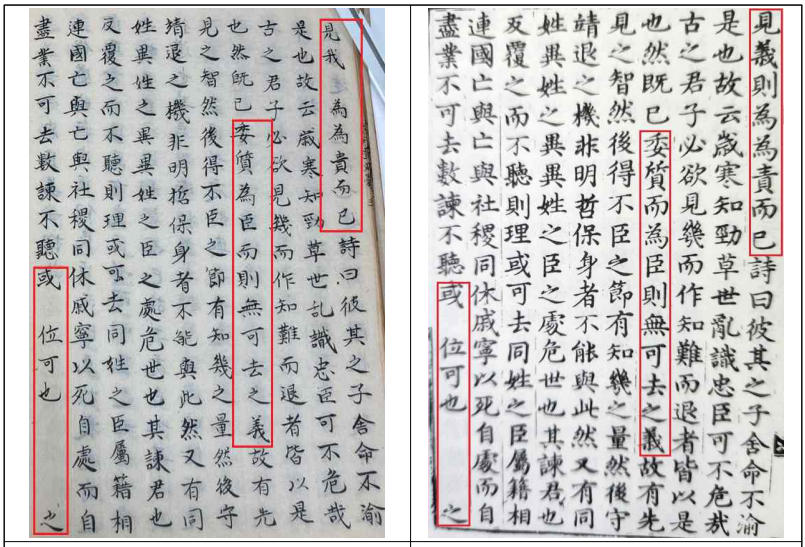


문고, 권5, 〈인재설〉 부분

14) 내각문고본에 신증된 25題 중에서, 권1의 〈述古十首〉, 권3의 〈贈僧〉은 「관동일록」에도 실려 있다. 이것은 내각문고본 필사자가 「관동일록」에서 뽑아 詩藁 속에 편입시켰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흩어진 유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위 두 작품이 내각문고본에도 삽입되고 「관동일록」에도 삽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신증 작품은 그 출처를 알 수 없다.

다음으로, 내각문고본과 경진자본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 경진자본은 전체적으로 내각문고본(또는 그 계열)을 그대로 수용하되 오류는 수정하거나 보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7]



내각문고본, 문고, 권3, 〈고금충신의사총론〉 부분 | 경진자본 권18, 〈고금충신의사총론〉 부분

[사진 7]은 〈고금충신의사총론〉의 부분인데, 1행을 비교해 보면 경진자본에서 '我'를 '義'로, '貴'를 '責'으로 수정하고, 4행의 '委質爲臣而則無可去之義'는 글자 순서를 바로잡았음을 알 수 있다. [사진 7]의 내용은 충신론을 전개한 부분인바, 충신은 의를 보고 행동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내각문고본의 '我'를 경진자본에서 '義'로 수정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貴'를 '責'으로 수정한 것은 틀린 것은 아니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내각문고본 1행의 공백은 경진자본에서 '則'으로 메웠으나, 10행의 공백은 메우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는 문맥상 무슨 글자를 놓아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의 [사진 6]의 〈자회〉와 〈인재설〉 부분도 경진자본에는 공백으로 처리되어 있다.[15]

15) 경진자본 중 교정본에 해당하는 규장각 소장 필사본 『매월당집』도 이와 동일하다.

그러나 [사진 6]의 〈고금제왕국가흥망론〉 부분은 경진자본에 각각 '業委靡顚踣以及唐室', '稱危亂滅亡者皆目秦'과 같이 채워져 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수나라 恭帝에 이르러 나라가 기울고 도적이 일어나, 수나라가 통일하였던 그 공업이 시들고 엎어졌다. 당나라가 일어날 즈음에는 사직단도 빈터가 되었으니, 그 때문에 지금까지 위태하고 어지럽게 되어 멸망한 것을 모두 진나라와 수나라 때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의 흐름상 위와 같이 보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경진자본 제작자도 위와 같이 보충했다고 본다. 그 외에, 시어가 경진자본에서 달라진 경우도 다수 나타난다.

한편, 경진자본 傳本에 대한 양승민의 연구에 의하면,[16] 경진자본에는 10행 18자본과 10행 17자본이 있고, 또 10행 18자본 중에는 미교정본과 교정본이 있다고 한다. 그동안 연구 자료로 널리 활용된 봉좌문고 소장본은 미교정본이고 또 다른 善本인 後彫堂本은 교정본이라고 한다.[17] 그런데 양승민의 논고에서 사진이 첨부된 미교정본과 교정본의 비교 사례를 내각문고본의 해당 부분과 비교해 보니, 내각문고본은 18자본 미교정본과 정확히 일치했다.[18]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각문고본은 10행 18자 경진자본(미교정본) 간행의 토대가 되었고, 그후에 미교정본을 계승하여 10행 17자본이 간행된 한편, 후조당본과 같이 10행 18자본을 교정한 교정본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내각문고본『매월당집』詩藁와 文藁의 문헌적 성격을 살펴보고, 그것을 을해자본『매월당집』, 경진자본『매월당집』등과 비교하여, 내각문고본은 을해자본『매월당집』을 저본으로 삼은 것이며, 경진자본은 내각문고본을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할 점이 있다. 필자는 위의 논의

16) 양승민, 앞의 글.

17) 후조당본은 양승민의 위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는데, 이 후조당본은 全 23권 11책 중 2권 1책이 빠진 것으로서 교정본이자 善本이라고 한다. 특히 빠진 2권 1책은 고려대 만송문고 소장본(殘存 4권 2책)으로 채우면, 후조당본은 최선본의 완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18) 두 부분만 예를 들어보겠다. 봉좌문고본, 후조당본, 내각문고본 권2 〈夷齊三首〉 중, 봉좌문고본(미교정본): "岐陽鳴鳳耀初輝", 후조당본(교정본): "岐陽鳴鳳耀初暉", 내각문고본: "岐陽鳴鳳耀初輝"; 권7 〈浣溪〉 중, 봉좌문고본: "倚欄情緖奈然何", 후조당본: "倚欄情緖奈愁何", 내각문고본: "倚欄情緖奈然何." 이상의 예에서, 내각문고본은 미교정본인 봉좌문고본과는 같고, 교정본인 후조당본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에서 을해자본, 내각문고본, 경진자본을 설명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일단 단순 비교하는 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형성과정을 '을해자본→내각문고본→경진자본'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현 내각문고본의 필사 시기가 16세기 후반 이전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결론이라고 하기 어렵다. 현 내각문고본이 16세기 말이나 17세기 이후에 필사된 것이라면, 성립 시기가 경진자본 간행 이후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다시 정리한다. 을해자본『매월당집』이 간행된 이후 새로 수습된 작품이 많았고, 그들을 을해자본과 아울러 필사하는 가운데 현 내각문고본과 같은 '신증'이 표시된 사본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본다.[19] 그리고 을해자본 이후의 여러 사본들을 대상으로 간행을 위한 定稿本이 만들어진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경진자본이 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어쨌든 현 내각문고본은 경진자본의 직접 저본은 아닐지라도, 을해자본『매월당집』의 구성과 내용의 대강을 알려준다는 점, 경진자본『매월당집』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 重刊되었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 2) 내각문고본 '유록'의 초고본적 성격

이번 절에서는 내각문고본에 '遊錄'의 이름으로 실려 있는 작품을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유호남록」과「유금오록」의 특징을 살펴볼 것인데,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유호남록」과「유금오록」은 김시습 遺稿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宋錫夏가 소개한『매월당고』자료와 비교해봐야 한다. 일찍이 송석하는『梅月堂藁』사본 한 책(권3과 권4)을 구득하고, 규장각소장 사본, 李仁榮 소장 (再鑄)갑인자본『매월당시집』(권10~12), 연활자본『매월당집』등과 비교한 뒤, 이들 비교본에는 없는 작품들을 활자화하여 소개한 바 있다.[20] 첫 번째로 활자화한 작품의 제명은 다음과 같다.

---

19) 이러한 사본 제작은 여러 차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본다.
20) 송석하,「書物同好會會報」14, 書物同好會, 1941, 1-5면. 원본은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다고 한다.

- 癸未秋因買書入京時主上方譯蓮經孝寧大君～其創起之緣
- 純金鑄像
- 沈香山聖僧
- 車渠螺
- 世宗致治之末年昭憲王后～後之嗣王倘崇是法宜鑒前轍三韓幸甚
- 新譯蓮經
- 讚四種御膳序와 詩 4수(松蕈, 葡萄, 薏苡, 杜梨)[21]

송석하는 이들 작품이 본인 구득본『매월당고』권3에 실려 있으며, 이인영 소장본 권11을 참고할 때「유호남록」의 일부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활자화한 작품의 제명은 다음과 같다.

- 圓覺寺落成會(詩와 序)
- 望卿雲百官致賀
- 初日上親點香大赦下詔 手詔
- 上命王世子捧羽帚收舍利 倭人野人參賀
- 受契券 御製
- 孝寧大君令余獻圓覺讚詩～錄于左乙酉秋淸寒誌
- 乞還山呈孝寧大君 時淹滯於京因大君之拘留也[22]

송석하는 이들 작품이『매월당고』권3에 실려 있으며, 이인영 소장본 권12를 참고할 때「유금오록」의 일부라고 밝혔다.[23]

마지막으로 활자화한 것은 〈半途復命召固辭陳情詩 并引〉이다.[24] 송석하는 이 작품이『매월당고』권3에 실려 있으며,「유금오록」의 일부라고 하였다.[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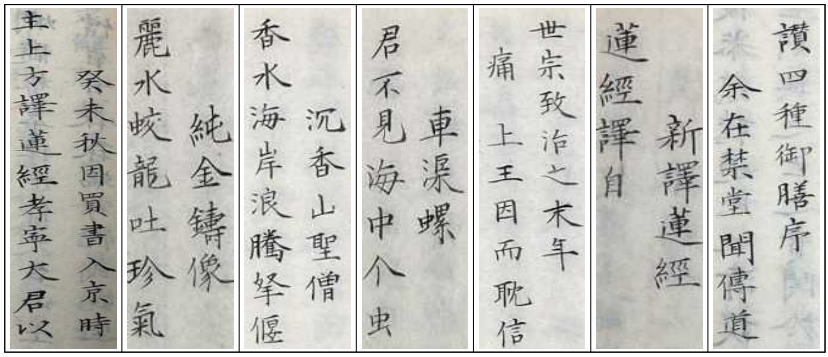
---

21) 이들 모두 대동문화연구원 편,「梅月堂續集 卷二」,『매월당전집』(성균관대, 1973)에 필사되어 있다.
22) 이들 모두 대동문화연구원 편, 같은 곳에 필사되어 있다.
23) 위의 작품 중 마지막 〈乞還山呈孝寧大君 時淹滯於京因大君之拘留也〉는 경진자본과 연활자본『매월당집』에도 실려 있다. 송석하도 연활자본에 실려 있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이인영 소장본에는 후미에 탈락이 있어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24) 이 작품도 대동문화연구원 편, 같은 곳에 필사되어 있다.
25) 이중에서 '引'을 제외한 시 작품은 경진자본에도 있다. 연활자본『매월당집』에는 문집 권6에는 詩와 引이 모두 있고, 시집 권13에는 시만 실려 있다. 이처럼 시가 중복된 것인데, 그것은 詩와 引이 모두 있는 것은『매월당시사유록』에 있는 것을 수용했기 때문이고, 시만 있는 것은 경진자본의 것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연활자본에 경진자본에는 없는 〈원각사낙성회〉, 〈수계권〉 등이 실려 있는 것도, 이것들이『매월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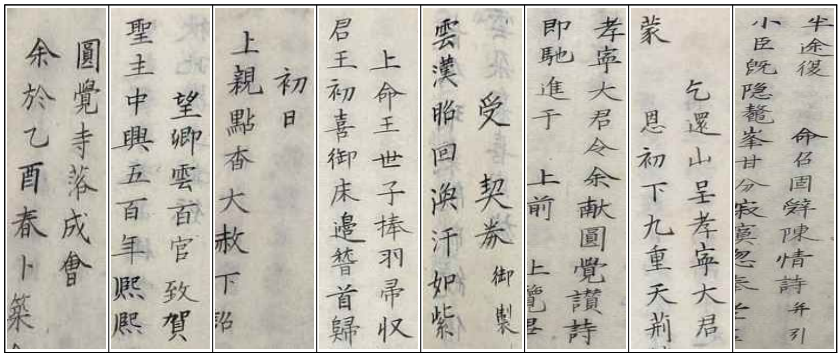
그리고 『매월당고』 권4에 필사된 작품은 연활자본 『매월당집』 권1~권9에서 산견된다고 하였다. 每半葉 13행, 每行 22자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필사되어 있어 권3 한 권에 「유호남록」과 「유금오록」이 함께 수록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송석하는 『매월당고』가 김시습의 自筆本 혹은 手澤本이며, 李耔가 수습한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송석하가 소개한 작품이 내각문고본 「유호남록」과 「유금오록」에도 모두 실려 있다는 점이다. 그 점은 제목만 뽑은 것이지만 [사진 8]과 [사진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8]




[사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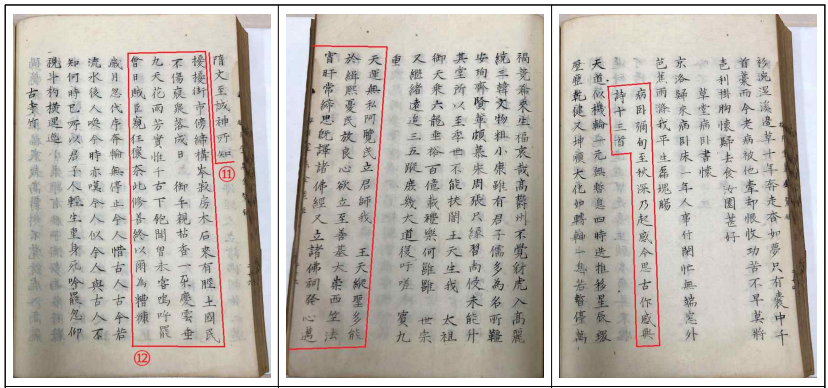

---

사유록』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 연활자본 제작의 기본 저본은 경진자본과 『매월당시사유록』이었다. 단, 〈원각사낙성회〉의 경우, 2연과 3연이 『매월당시사유록』에는 누락되었다. 『매월당시사유록』을 수용한 연활자본에도 2연과 3연이 빠진 그대로 전재한 뒤, 작품 말미에 작은 글씨로 "中二聯失之"라고 적어 놓았다.

이로써 내각문고본 「유호남록」과 「유금오록」 역시 原稿本(자필본, 수택본) 계통에 속하는 사본임을 알 수 있다.

「유금오록」의 고본적 특징은 이른바 '감흥시'에서도 확인된다. 경진자본 「유금오록」에는 〈病臥彌旬至秋深乃起感今思古 作感興詩十一首〉가 실려 있다. 그런데 [사진 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각문고본에는 제명이 〈病臥彌旬至秋深乃起感今思古 作感興詩十三首〉로 되어 있고 실제 작품도 13수이다. 경진자본 11수와 비교했을 때, 내각문고본에는 경진자본 제10수와 제11수 사이에 두 수가 더 들어가 있고 그래서 총 13수가 된 것이다.[26]

[사진 10]



| 제12수 | 제11수 | 제목 |
|---|---|---|

이러한 차이는 원고본 단계의 「유금오록」을 저본으로 삼아 경진자본을 제작할 때 위 두 수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뒤에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두 수가 제외된 것은 그것이 불교 관련 내용이라는 점,[27] 역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26) 송석하본은 원본 不傳으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매월당시사유록』에는 이 작품이 수록되지 않았다. 연활자본은 경진자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니 당연히 11수이다. 규장각 소장 『매월당집』은 중간에 2책 4권이 낙질인데, 낙질된 작품이 「유관동록」, 「유호남록」, 「유금오록」, 「관동일록」이라 확인할 수 없고, 연세대 소장 『매월당집』도 「유관서록」까지만 필사되어 있어,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27) 앞에서 살펴본바 송석하본과 내각문고본에 실려 있는 일련의 작품([사진 8], [사진 9])이 경진자본에 빠진 것도 그것들이 주로 불교 관련 내용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기자헌의 언급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기자헌은 李耔가 수습한 김시습 유고본과 경진자본 『매월당집』을 바탕으로 『매월당시사유록』을 간행하면서, 〈원각사낙성회〉 시와 서, 〈수계권〉의 시, 〈半途復命召固辭陳情詩〉의 引 등이 경진자본에 빠진 것을 두고, 이들이 불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梅月堂詩四遊錄後序〉). 기자헌의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도 경진자본에 빠진 것이 본래 있었던 것이며, 그것이 왜 빠졌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있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점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내각문고본 「명주일록」을 살펴보자. 내각문고본 「명주일록」도 경진자본 이전 단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내각문고본 「명주일록」의 마지막 작품의 제명은 〈太公〉이다. 이 작품은 몇 글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내각문고본 詩藁 권2, "詠史"의 첫 작품 〈嘲二釣叟〉의 첫 작품과 동일하다.[28] 이렇게 중복 수록이 된 것인데, 이는 내각문고본 詩藁의 형성과정과 '유록'의 전승 과정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즉, 시고를 편집할 때 「명주일록」에 있는 〈太公〉을 권2에 수용했지만, 「명주일록」은 내각문고본 시문고와는 전승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태공〉이 그대로 잔존해 있었던 것이다.

〈태공〉이란 작품이 「명주일록」에 본래부터 삽입되어 있었다는 점은 목활자본 「명주일록」[29]을 보면 확인된다. 목활자본 「명주일록」에도 〈태공〉이란 작품이 마지막에 실려 있고 내용도 내각문고본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는 내각문고본 「명주일록」과 목활자본 「명주일록」은 같은 계통의 유록으로서, 「명주일록」의 본래 형태를 간직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경진자본 「명주일록」에는 〈태공〉이 실려 있지 않다. 그것은 「명주일록」을 경진자본 시집 권14로 편제할 때에, "詠史"의 첫 작품 〈嘲二釣叟〉와의 중복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경진자본의 시구를 보면 확인된다. 경진자본 권2, "詠史", 〈嘲二釣叟〉의 해당 작품은 "風雨蕭蕭拂釣磯 渭川魚鳥識忘機 如何老作風雲將 終使夷齊餓采薇 風雲一作鷹揚"와 같다. 여기에 '風雲'이 어떤 데는 '鷹揚'이라고 되어 있다는 세주가 보이는데, 내각문고본과 목활자본 「명주일록」의 〈태공〉 시에는 공히 '풍운장'이 아니라 '응양장'으로 되어 있다. 요컨대, 경진자본에서 '風雲一作鷹揚'이란 세주를 단 것은 '응양장'으로 된 「명주일록」의 〈태공〉 시를 경진자본 편집자가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주일록」을 권14에 배치할 때에는 〈태공〉을 제외했고, 그 대신에 〈태공〉의 '응양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권2에서 세주로 반영한 것이다.

---

28) 각 작품은 다음과 같다.
〈太公〉: "風雨蕭蕭拂釣磯 渭川魚鳥識忘機 如何老作鷹揚將 終使夷齊餓採薇."
〈嘲二釣叟〉: "風雨蕭蕭拂釣磯 渭川魚鳥識忘機 如何老作風雲將 終使夷齊餓采薇."
29) 연세대 소장 『매월당시고』에 수록됨.

경진자본에서 '풍운장'이라고 쓴 것은 내각문고본(또는 그 계열)의 〈嘲二釣叟〉 부분을 따른 것이다. '응양장'이 원작의 용어임을 감안하면, 내각문고본의 저본이 된 을해자본을 제작할 때 이미 '응양'을 '풍운'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30]

한편, 목활자본 「명주일록」이 경진자본을 저본으로 했다면 「명주일록」에 〈태공〉이란 시가 삽입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목활자본 「명주일록」은 경진자본 간행 이전의 어떤 저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목활자본 「명주일록」과 일치하는 내각문고본 「명주일록」도 경진자본 간행 이전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상으로, 내각문고본『매월당집』에서 '유록'으로 편성된 「유호남록」, 「유금오록」, 「명주일록」의 특징을 살펴보았다.[31] 그 결과, 「유호남록」과 「유금오록」은 김시습 자필본 계통의 원고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명주일록」은 경진자본『매월당집』간행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록임을 알 수 있었다.

## 4. 원작과 새 작품 소개

내각문고본『매월당집』은 김시습 시문집의 초기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원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실려 있다는 점, 그동안 김시습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작품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복원된 원작과 새 작품들은 김시습의 현실인식과 생평을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하고 조명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30) 김시습의 〈太公〉은 조선후기까지 널리 회자된 작품으로 보인다. 한국고전번역원 자료를 찾아보면, 〈題渭川垂釣圖〉, 〈題太公釣魚圖〉, 〈題姜太公釣魚圖〉, 〈渭川持竿圖詩〉 등의 이름으로 여러 문헌과 실록에 작품이 실려 있는데, 모든 작품에서 '鷹揚將'으로 되어 있다. 응양장은『시경』, 「大雅」, 〈大明〉에 등장하는 말로서, 강태공 여상을 가리킨다. 김시습의 〈태공〉에서 '응양장'은 수양대군을 상징하는데, 김시습의 비판적 시각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을해자본『매월당집』의 편집자가 '풍운장'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전번역원 자료를 검색해 보면, 李濟臣의『淸江先生詩話』에는 서거정이 김시습에게 〈강태공조어도〉를 보여주면서 제시를 청했다고 기록돼 있고, 이수광의『지봉유설』에는 한명회가 김시습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제시를 청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정조는 유몽인과 그 아들 柳潔, 조카 柳淪 등을 추증하거나 관작을 회복하는 전교를 내리면서, 김시습의 〈위천수조도〉에 대한 시는 義氣가 있다고 하며, 유몽인을 김시습에 비유한 언급을 하였다.

31) 내각문고본 「관동일록」은 목활자본 「관동일록」, 경진자본 「관동일록」 등과 특기할 만한 차이가 없다.

다만, 본고는 내각문고본의 문헌적 성격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작과 새 자료에 대한 심층 연구는 다른 논고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특징만 소개하기로 한다.

### 1) 〈감흥시 13수〉

먼저 〈감흥시 13수〉를 살펴보겠다.[32] 이 작품은 그동안 경진자본 11수를 대상으로 이해되어왔는데, 원작 13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고찰해 보겠다. 먼저 새로 복원된 두 수의 내용을 보겠다.

〈제11수〉

| | |
|---|---|
| 天運無私阿 | 하늘의 운행은 사사로움이 없어 |
| 覽民立君師 | 백성 살피려 임금을 세웠네. |
| 我王天縱聖 | 우리 임금은 하늘이 내린 성인으로 |
| 多能於緝熙 | 빛나는 재능이 많으시다. |
| 憂民放良心 | 백성 걱정에 선량한 마음 놓아서 |
| 欲立至善基 | 지선의 터에 서고자 하였다. |
| 大崇西竺法 | 크게 불교를 숭상하여 |
| 宵旰常締思 | 종일토록 늘 생각을 가다듬으시네. |
| 旣譯諸佛經 | 이미 여러 불경을 번역하시고 |
| 又立諸佛祠 | 또 여러 불사도 세우셨네. |
| 發心邁隋文 | 발심함이 수 문제에 나아가시니 |
| 至誠神所知 | 그 지극한 정성은 신도 알아주었다. |

〈제12수〉

| | |
|---|---|
| 擾擾街市傍 | 떠들썩한 시가지 노방에 |
| 締構岑寂房 | 고요한 방 하나 얽어 만들었다. |
| 木石來有脛 | 나무와 돌 가져와 기초를 이루니 |
| 土國民不傷 | 땅 위의 백성들은 상하지 아니했다. |
| 裒衆落成日 | 무리를 모아 낙성회 하는 날에 |
| 御手親拈香 | 임금이 손수 분향을 하시니 |

32) 〈病臥彌旬至秋深乃起感今思古 作感興詩十三首〉를 〈감흥시〉 또는 〈감흥시 13수〉로 지칭하기로 한다.

一朶慶雲垂　　한 떨기 경사스러운 구름 드리우고
九天花雨芳　　하늘에선 꽃비가 향기롭구나.
實惟千古下　　진실로 천년 뒤를 생각하면
飽聞曾未嘗　　일찍이 없던 일로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嗚呼罷會日　　슬프다, 낙성회가 끝나는 날
賊臣窺狂獞　　적신이 엿보면서 미친 듯 날뛰었다.
奈此修善終　　어찌 이것이 修善의 끝인가
以爾爲糟糠　　그대들은 응당 찌꺼기가 될 것이다.

이상 제11수의 내용은 세조의 불교 숭상을 찬미하는 내용이다. 김시습은 1463년과 1465년 두 차례에 걸쳐 세조의 불교 사업에 참여한 바 있고,[33] 그 과정에서 세조의 성덕과 불교 사업을 찬미하는 여러 편의 시문을 남긴 바 있다. 앞에서 살펴본바 송석하본과 내각문고본에는 있으나 경진자본에는 빠져 있는 것이 그들인데, 위 제11수는 그 시문들과 같은 내용이다.

제12수는 원각사낙성회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세조실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원각사낙성회는 매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장악원의 음악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수많은 승려들이 첨석했고, 외국인까지도 초대를 받아 성사를 함께 했다. 세조도 여러 신하들을 대동하여 요임금을 송축하듯 부처를 참배했다. 제12수는 그때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후세에도 일찍이 없던 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시습이 낙성회 현장에서 또 하나 주목한 것은 적신의 모습이다. 여기서 시인이 지칭하는 '賊臣'은 세조 정권에 참여하여 출세한 신숙주, 한명회, 노사신 등이 분명할 것이다. 낙성회가 있던 때에 신숙주는 영의정이었고 노사신은 도승지였으며 한명회는 상당부원군으로서, 낙성회에 직접 참여했음은 물론 원각사 창건 전후의 사업에 깊이 관여했고, 세조가 원각사에 거둥할 때마다 배행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에 대해 김시습은 적신이라고 표현하면서 강한 적대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적신이 엿보면서 미친 듯 날뛰었다."는 표현은, 한명회 등이 儒者이면서도 머리를 깎고 중 행세를 하면서

33) 계미년(1463) 가을에 서울로 책을 사러 갔다가 내불당에서 10일간 법화경언해 사업에 참여한 바 있고, 을유년(1465) 봄에는 원각사낙성회에 참여한 바 있다. 이상은 대동문화연구원 편, 『매월당전집』에 수록된 〈내불당〉의 서문과 〈원각사낙성회〉 서문에 각각 나타나 있다.

정권에 참여하지 않는 김시습의 처신을 비판했다는 뜻으로 읽힌다.[34]

이 작품은 그동안 경진자본 11수를 대상으로, 김시습의 유교 중심의 문명 전환에 대한 생각과 유학의 길을 가겠다는 사상적 전환의 결단이 표현된 작품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35] 그러나 필자는 생각이 좀 다르다.

먼저 〈감흥시〉는 첫 수와 마지막 수에 핵심이 담겨 있다고 본다. 내용을 살펴보겠다.

〈첫 수〉

| | |
|---|---|
| 天道似機輪 | 천도는 기계의 바퀴와 같아 |
| 一元無暫息 | 一元으로 잠시도 쉬지 않네. |
| 四時迭推移 | 네 계절 번갈아 바뀌어 가고 |
| 星辰環歷歷 | 星辰이 돌아감도 분명하구나. |
| 乾健又坤順 | 乾은 굳세고 또 坤은 순하여 |
| 大化如轉軸 | 큰 변화가 수레 굴레 돌아가듯 하네. |
| 一息若暫停 | 한 순간이라도 잠시 멈춘다면 |
| 萬彙不能毓 | 만물은 길러지지 못하리라. |
| 君子法天運 | 군자는 하늘의 운행을 본받아 |
| 至誠體於穆 | 지성으로 깊은 덕을 체득한다. |

〈마지막 수〉

| | |
|---|---|
| 歲月忽代序 | 세월은 홀연히 바뀌어 가니 |
| 奔輪無停止 | 달리는 바퀴 같이 멈추지 않네. |
| 今人惜古人 | 지금 사람 옛 사람을 애석해 하나 |
| 古今若流水 | 지금과 옛날은 흐르는 물과 같아라. |
| 後人嘆今時 | 뒷사람이 지금 시대를 탄식함도 |
| 亦嘆今人似 | 역시 지금 사람이 옛날을 탄식함과 같은 것 |
| 今人與古人 | 지금 사람과 옛 사람 |
| 不知何時已 | 어느 때 그칠지 알지 못해라. |
| 所以君子人 | 그러므로 군자들은 |

34) 경진자본을 간행하면서 위의 두 수를 제외한 것도 불교 관련 내용과 함께 '적신'이란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런 것 같다.

35) 김풍기, 「조선 초기 문명사의 전환과 김시습의 〈유금오록(遊金鰲錄)〉」, 『한민족문화연구』 62, 한민족문화학회, 2018, 75-104면; 강창규, 「매월당 김시습의 「감흥시 11수」 연구」, 『한국문학논총』 90, 한국문학회, 2022, 5-38면.

輕生重身死　　삶을 가벼이 여기고 죽음을 중히 여겼네.
吟罷忽仰視　　읊고 나서 문득 하늘 우러러 보니
斗杓橫邐迤　　북두성 자루 비스듬히 걸려 있네.[36]

인용 시의 요점은 역사는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반복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을 조망하면서, 지금에서 옛날을 비판하고 애석해하는 것처럼 뒷사람이 지금을 비판하고 탄식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유교와 이단의 교체·반복의 역사를 조망한 결과로 얻은 것으로 보이는바, 제2수~제12수는 그 구체적인 조망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감흥시 13수〉의 거시적 구조는 '역사는 변한다는 것-그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역사의 변화에 대한 재확인'과 같이 된다.

그러면 먼저 〈감흥시 11수〉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감흥시〉의 거시적 구조로 볼 때, 〈감흥시 11수〉는 그 짜임이 어색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2수-제10수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다.

제2수: 삼황오제와 그 이후의 성군들이 선정을 펼침.
제3수: 주나라가 쇠하고 楊朱, 墨翟이 등장하면서 세상이 혼란해짐.
　　孔孟의 말씀도 안 통함.
제4수: 송나라의 몇몇 군자들과 주희가 애를 썼으나 道가 행해지지 않고 이단의 학설이 등장함.
제5수: 신선의 도는 참되지 않아 군자들이 물리치려 함.
제6수: 불법이 중국으로 전래됨. 불법은 성인의 법도와 다름.
제7수: 신라 말부터 불교를 다투어 따름.
제8수: 내세의 복만 희망하다보니, 전쟁이 일어나는 줄도 모름.
제9수: 고려가 되어 안향과 이제현 같은 유자가 등장하여 程朱를 사모하였으나,
　　불교에 깊이 침윤된 왕을 돕지는 못함.
제10수: 태조가 나라를 세우니 예악이 온전해지고 세종이 이어받아
　　삼황오제 때의 大道가 거의 회복되었으나, 세종이 안타깝게도 승하함.

이상과 같이 요약되는데, 전체적으로 유교 중심의 관점으로 仙道, 佛教를 비판

36) 이상 번역은 강창규, 위의 논문, 부록 활용.

하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제10수에서 세종 때에 유교의 대도를 회복했는데 세종이 승하하여 아쉽다는 것으로 끝맺은 것은 이상하게 느껴진다. 세종 때에 유교의 대도를 회복했으나 그 이후에 세상은 다시 변했다는 내용이 있어야만, 마지막 수의 "세월은 홀연히 바뀌어 가니, 달리는 바퀴같이 멈추지 않네." 라는 생각과 연결되고, 역사의 보편성을 형상화한 첫수와도 호응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감흥시 11수〉의 제10수와 마지막 수의 단절감은 내각문고본에 있는 제11수, 제12수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감흥시〉에 대한 이해는 〈감흥시 13수〉를 중심으로 해야 온전히 될 수 있다고 본다.

복원된 두 수를 포함한 〈감흥시 13수〉는 김시습의 유교 문명론적 사유보다는 세조와 세조의 불교 사업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역사의 보편적 진리를 근거로 표출한 작품으로 이해된다. 즉, 유교이념을 지향하는 조선에서 세종이 등극하여 유교의 대도를 펼쳤으나, 다시 불교 사업이 왕성하게 진행되는 현실을 목도하고서, 세조가 펼치는 그런 현실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한 단계라는 인식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1463년 가을에 쓴 〈宕遊湖南錄後志〉를 보면 세조의 성덕을 찬미하는 언급이 보인다. '遊錄'에 한해서 보자면, 세조 찬미의 언급은 여기서 처음 보이는데, 이것은 내불당에서의 체험을 시로 형상화하면서 세조를 칭송한 일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37] 세조를 칭송한 이 〈탕유호남록후지〉의 언급에 대해, 심경호는 김시습이 현실계를 있는 그대로 승인하려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는데,[38] 낙성회에 참여하고 금오산으로 돌아온 후에 지은 〈감흥시 13수〉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현실인식이 역사적 보편성 속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한편으로, 김시습이 〈감흥시 13수〉를 지었을 때는 10여 년의 방랑 생활을 마친 시점이었다. 그리고 그사이에 두 번이나 세조를 만났고, 그에 대한 찬미의 시문을 많이 지었다. 김시습의 그러한 행위를 세조의 환대에 대한 보응의 의미로 볼 수도 있으나, 현실인식의 변화가 일정하게 있었고 그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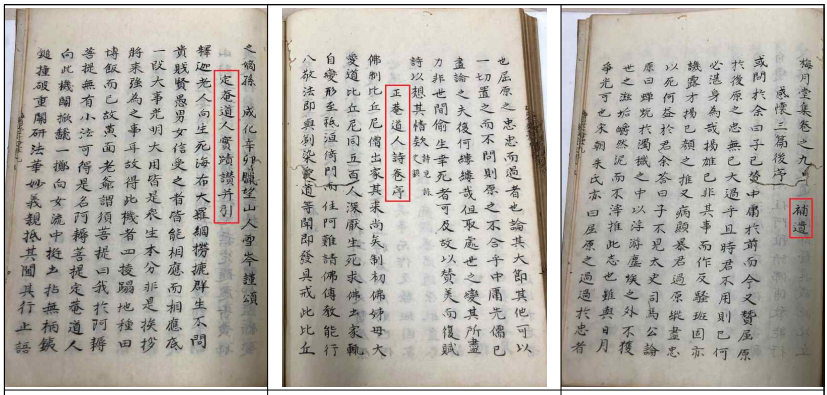
37) 앞에서 살펴본바, 이때의 세조 칭송 시가 경진자본에는 빠지고 송석하본과 내각문고본에는 수록되어 있는 그것이다.
38) 심경호, 『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3, 195-196면.

김시습과 세조의 거리를 어느 정도 좁혔다고도 볼 수 있겠다.[39] 요컨대, 〈감흥시 13수〉는 1465년 무렵의 김시습의 현실인식과 역사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2) 〈正菴道人詩卷序〉와 〈定菴道人實蹟讚并引〉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각문고본 책8, 권9는 '補遺'인데, [사진 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正菴道人詩卷序〉와 〈定菴道人實蹟讚并引〉이 실려 있다. 내각문고본 계열 사본이 만들어질 때 새로 거두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사진 11]



정암도인실적찬병인 | 정암도인시권서 | 보유

먼저 〈正菴道人詩卷序〉를 살펴보겠다. 이 글은 4면 5행(총 45행)의 분량으로서, 正菴道人의 시집에 붙인 서문인 듯한데,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 正菴道人은 비구니승으로서 법명은 海敏이고 자는 正菴이다. 속성은 이씨고 태안 사람이다. 13세에 定菴道人 밑에서 수도하여 비구니의 종장이 되었다. 세조의 명을 받아 정축년(1457년, 세조 3) 9월에 정업원의 주지가 되었고, 수시로 내전으로

39) 김시습이 낙성회에 참여했을 때 세조는 김시습을 붙잡아두려 했으나 김시습은 끝내 응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김시습의 현실인식으로 볼 때, 세조의 문제보다는 〈감흥시〉 제12수에 나오는 세조 측근의 적신 때문일 수 있다고 본다.

들어가 대왕대비, 왕대비, 왕비 이하 후궁 빈어들에게 불법을 가르치니, 그들이 깊이 감복하였다. 세조가 죽은 후 예종, 성종도 海敏을 깊이 사랑하였다.

이런 내용 다음에 김시습의 頌이 서술되고, 끝에 "成化 辛卯 臘望 山人 雪岑 謹頌"으로 적혀 있다. 1471년(성종2) 섣달 보름에 작성된 것이다.

다음으로 〈定菴道人實蹟讚并引〉은 4면 11행(총 51행)의 분량으로,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定菴道人의 법명은 妙法이고 속성은 丘氏다. 正統 기사년(1449년, 세종31)에 세수 76세(법랍 44년)의 나이로 죽으니, 제자인 정업원 주지 海敏이 유골을 수습하여 수종사 서면 기슭에 장사지냈다. 생전에는 태종의 후궁 懿嬪 권씨와 죽은 태종을 위해 설법을 베풀었으며, 비구니들에게도 불법을 가르쳤다. 또한 금강산 菩提津, 단발령 등을 유람하면서 시를 지었다. 해민이 김시습에게 글을 부탁하기에, 김시습은 定菴道人의 두세 가지 어록을 얻어 기록하고 讚을 지었다.

이런 내용 다음에 김시습의 讚이 제시되고, 끝에는 "成化 辛卯 冬十月 吉日 比丘 雪岑 淸寒子 與沐 謹讚"으로 적혀 있다. 1471년(성종2)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이상 두 작품을 보면, '보유'의 배열 순서와는 다르게, 〈定菴道人實蹟讚并引〉을 먼저 짓고 약 두 달 후에 〈正菴道人詩卷序〉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글에 등장하는 丘氏와 海敏에 대해서는 실록에 그 정보가 일부 있다.

먼저 구씨에 대한 기록을 보겠다.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 23년(1441)에 서거정 등이 세종의 불교 숭상을 우려하는 일련의 상소를 올렸는데, 그중에 丘氏 성의 비구니가 궁중을 출입하여 懿賓을 꾀어 중이 되게 하였으니, 빨리 궁 밖으로 내치라는 내용이 있다.[40] 그리고 여러 신료들의 상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丘尼가 궁중에 나들면서 宮主로 하여금 머리를 깎게 하여도 금지하지 못한 것은

40) "신 등이 그윽이 듣자오니, 비구니의 丘라고 하는 성을 가진 자가 슬기롭고 간사하고 말을 잘하며, 문자를 꾸며 요망하고 속이는 일을 다하여 부녀들을 미혹하게 하오니, 이는 요물이므로 멀리 내쫓아야 마땅할 바이옵거늘, 근년에 궁중에 인연하여 여러 가지로 속이고 꾀어서 懿嬪이 머리를 깎고 중의 옷을 입게 되었으니, 만세에 宮壺의 軌範이 되게 하는 바가 아니옵니다. (…) 전하께서는 尼丘를 밖으로 내쳐서 근본을 끊고 또 의빈으로 하여금 옛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궁중을 바르게 하시면 크게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세종실록』, 세종 23년 신유(1441) 12월 9일).

나의 과실이다."[41]라는 세종의 말도 등장한다. 그러나 세종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상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定菴道人實蹟讚并引〉에 나타나는 구씨의 행적이나 몰년 등을 고려할 때, 실록에 언급된 丘尼는 定菴道人 구씨가 분명하다.

海敏의 경우에는, 『세조실록』에 등장하는 "정업원 주지 尼僧 海敏"[42]이라는 기록과 관련 내용, 서거정 등이 雪俊을 처벌하라는 『성종실록』의 기록 중에 "(설준이) 정인사 주지가 되어 전의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죽은 여승 海敏을 追薦한다고 핑계하여 일컫고 크게 법회를 열어서 추잡하고 더러운 여승과 부녀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틀밤 씩 머무르면서 유련하였다."[43]라는 기록을 근거로, 조선시대 정업원 주지의 역사를 살피는 논고에서 이미 거론된 바 있다.[44] 〈正菴道人詩卷序〉의 내용과 『성종실록』 자료를 근거로 보면, 해민은 1457년부터 정업원 주지로 있다가 1472년이나 1473년 무렵에 죽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 두 편의 글을 합쳐서 보면, 김시습은 1471년에 정업원 주지 해민을 만난 자리에서 해민의 스승인 구씨에 대한 이력을 해민으로부터 직접 듣고 해민의 부탁으로 〈定菴道人實蹟讚并引〉을 지었고, 다시 두어 달 후에 〈正菴道人詩卷序〉를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定菴道人實蹟讚并引〉에는 구씨 도인이 의빈에게 전한 말과 태종을 위한 普說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씨의 생전 어록을 활용한 것이다. 아마도 海敏이 스승의 생전 기록물을 일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시습이 해민을 직접 만났으니, 그녀에 대해서도 여러 이력을 들었을 것이고 또 해민의 詩卷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正菴道人詩卷序〉도 지었을 것으로 본다.

「유금오록」 발문에 의하면, 김시습은 1471년 봄에 서울로 올라왔다.[45] 이 해 겨울에 해민을 만났으니, 이때부터 정업원 출입이 줄곧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 6년(1475) 경연 자리에서, 司諫 朴崇質이 雪岑이 불경을 가르친

41) 『세종실록』, 세종 23년 신유(1441) 12월 9일.
42) 『세조실록』, 세조 9년 계미(1463) 6월.
43) 『성종실록』, 성종 4년 계사(1473) 7월.
44) 대표적으로, 황인규, 「조선전기 정업원과 비구니 주지」, 『한국불교학』 51, 한국불교학회, 2008, 103-130면; 탁효정, 「조선 전기 정업원(淨業院)의 성격과 역대 주지」, 『여성과 역사』 22, 한국여성사학회, 2015, 101-132면 등 참조.
45) "辛卯春 因請入京 壬辰秋 隱城東瀑泉精舍 卜築終年云 癸巳春志."

다는 핑계로 정업원에 출입하여 이틀을 머물렀다고 아뢰는 내용[46]으로 봐서도 충분히 짐작이 된다.

한편, 정암도인 구씨는 궁중에 출입하여 비빈들과 소통하고 서거정 등의 상소에서 비구니의 대표적인 인물처럼 언급되며, 정업원 주지 해민의 스승이고 김시습이 그를 위해 글을 지을 정도의 인물임을 고려할 때, 구씨 역시 정업원 주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47] 그러니 조선시대 정업원 주지의 역사를 살피는 자리에 추가해야 할 인물이 아닌가 한다.

### 3) 林泉佳話

『임천가화』는 내각문고본 『매월당집』의 別集으로 삽입되어 있다. [사진 12]에서 확인되듯이, 표지 제첨과 권수에 "別集"으로 표기되어 있어 애초에 별책으로 單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行字數와 필체 등 서지사항이 내각문고본 시문고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내각문고본 시문고의 필사자와 동일인에 의해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 12]




『임천가화』 첫 면 | 표지

46) 『성종실록』, 성종 6년 을미(1476) 5월.
47) 정업원은 세종 30년(1448)에 일시 혁파되었다가 세조 5년(1459)에 중창되었다. 그러므로 구씨가 활동할 시기에 정업원이 존재하고 있었다.

『임천가화』는 김시습의 저작으로 조선시대 목록집에 기록되어 있다. 權文海(1534-1591)의『大東韻府群玉』권14에 그 서명이 적혀 있고, 金烋(1597-1638)의『海東文獻總錄』에는 "諸家雜著述" 항목에『임천가화』의 머리말이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사진 12]에서 볼 수 있듯이,『임천가화』첫 면에 머리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임천가화』에 대해 청한자(淸寒子)는 말한다. 선가(禪家)의 이런저런 일을 논의한 것은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서다. 선림(禪林)의 자잘한 이야기와 교가(敎家)의 옳지 못한 주장을 바로잡아 평론하였고, 또 뒤섞여 있는 고금 인물의 우열과 청탁을 논단하여 판가름하였다. 이치에 통달한 자에게 하나의 일을 제시하자 나머지 부분이 환히 드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앎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여러 참학(參學)들에게 인가받을 수 없는 책 속의 성현이라 하겠다.[48]

김휴가 소개한 글도 이와 같다. 이로 볼 때, 김휴는『임천가화』를 적접 보고 기록한 것이 분명하다. 김휴는 스승인 旅軒 張顯光(1554-1637)의 권유로 1616년경부터 자료를 모으고 집필을 했다고 하는데,[49] 이 점과 권문해의 생몰 연대를 합쳐서 보면,『임천가화』는 임란 이전인 16세기 말은 물론 17세기 전반까지도 존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문해의 활동 시기를 고려하면, 경진자본『매월당집』이 편찬될 때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임천가화』는 총 34장의 분량이고, 화수로는 전체 70화이다. 각 이야기별로 행이 나눠져 있어 분별이 가능하며, 각편의 분량은 가장 적은 분량인 4행부터 가장 긴 분량인 25행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임천가화』는 내용상 불교의 본질과 이치를 서술한 각편, 불교 제도와 풍습에 관한 내용, 승려의 거취와 고승에 관한 이야기, 불교의 타락을 비판한 각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불경, 선어록, 고승전 등을 많이 활용하였다. 특히 불교 제도와 풍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비판하거나 당대

---

48) 林泉佳話 淸寒子曰 議禪家消息 以遣其寥闃也 凡諸禪林騈枝之淡 敎家不經之說 訂以評之 與古今人物龍蛇之混 涇渭之分 議以辯之 使達理 擧一反三 以趣於端的 盖不能印 可於諸參之黃卷聖賢也.

49) 박학래,「『海東文獻總錄』과 敬窩 金烋」,『민족문화연구』5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9, 227-248면 참고.

사찰이나 승려의 타락상을 비판한 내용이 주목된다. 전체적으로 불교 이론, 제도, 풍습에 대한 김시습의 비판적 시각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임천가화』는 불교 비평집의 하나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50]

##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에 소장된 사본 『매월당집』의 문헌적 성격과 위상을 고찰하였다.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각문고본 『매월당집』은 시고와 문고, 별집, 유록 등 각각 독립성을 지닌 별책이 하나의 전집으로 묶인 것이다. 책에 찍혀 있는 인장을 통해 볼 때, 18세기 말이나 19세기 초에 일본 창평판학문소에 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내각문고본 시고와 문고를 을해자본 『매월당집』, 경진자본 『매월당집』 등과 비교해본 결과, 내각문고본은 을해자본 『매월당집』을 수용·증보한 사본이었다. 증보 과정에서 을해자본에 실려 있지 않은 시와 산문을 새로 추가하였다. 새로 추가한 시에는 '신증'이라고 표시했고 산문은 "보유"를 따로 두어 그 속에 편입하였다. 현재 을해자본 『매월당집』은 잔편만 남아 있는데, 내각문고본을 통해 을해자본의 실제 구성과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을해자본을 수용·증보한 사본은 현 내각문고본 외에도 다수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들을 바탕으로 정고본이 만들어진 다음, 그것을 경진자본 『매월당집』으로 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 내각문고본은 경진자본의 직접 저본은 아닐지라도, 경진자본이 어떤 단계를 거쳐 중간되었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셋째, 내각문고본 『매월당집』의 '유록' 속에 배치된 「유호남록」, 「유금오록」, 「명주일록」 등도 원고본 단계의 초기본적 성격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여기에는 김시습의 자필 유고본에 실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내각문고본의 「명주일록」도 내용이 목활자본 「명주일록」과

50)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임천가화』에 대한 논의는 다음 논문에서 자세히 이루어졌다. 차충환, 「김시습의 『林泉佳話』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87, 한국한문학회, 2023, 99-140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초고본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경진자본『매월당집』에는 '감흥시'가 11수로 되어 있는데, 내각문고본『매월당집』에는 13수로 되어 있다. 살펴본 결과, 본래 13수였는데 경진자본을 간행하면서 두 수를 뺀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작 13수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보면, 1465년 무렵 김시습의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김시습은 역사의 보편성을 근거로 세조가 지배하던 당시의 현실은 인정하되, 세조 측근의 신하들에 대해서는 강한 적대 의식을 표출했다.

내각문고본『매월당집』에는 새 작품으로서 비구니의 생애를 기록한 글이 두 편 있고, 그동안 서명만 알려졌던『임천가화』도 별집으로 삽입되어 있다. 이들은 불교와 관련된 김시습의 생평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거나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본다.

## ▮ 부록①〈正菴道人詩卷序〉

佛制 比丘尼僧出家 其來尙矣 制初 佛姊母大愛道 比丘尼同五百人 深厭生死 求佛出家 輒自變形 至祇洹倚門而住 阿難請佛傳教 能行八敬法 卽與剃染愛道 等聞卽發具戒 此比丘尼之始也 佛法流入中國 漢永平間 楚驗有靈 漢宮嬪妃彩女等一百七十 洛陽婦女二千女 冠柳大葉 崔同虛等九十 請爲尼 帝許之 詔洛陽城內 造尼伽藍住之 我道來東 厭髑助化 其時佛法大盛 法興王傳羅王位于太子出家 其妃亦出家 宮女及城中婦女從之 創永興寺住之 此海東比丘尼之始也 此法本無男女愚智 得此門者 皆能荷擔 故與大僧同例 則摠持得法於 老胡 資壽逞機於妙喜灌溪之服 末山潟山之助 鐵磨這數人 雖是女流具大器量 非他老媼之 比也 尼海敏 字正菴 俗姓李氏 泰安人也 幼歲莊重 不事生産 父母許配不聽 十三投定菴 爲師 授法華妙旨 參質宗匠 世祖重營安逸院之舊基 將集尼徒居之 問於朝野 衆曰 安逸院 卽舊國王妃嬪 不幸失天 而終年之所定 此女類之拔萃者 宜住而爲表率焉 則尼海敏其人也 且海敏尼童眞出家 不計生業 參方已久 而動止行裝 合古律儀 眞本色尼僧也 世祖許之 以丁丑九月十四日 命領尼僧住淨業 自住之後 城中士女輻湊 座下聞濤 信而受者 不知其數 願輸賮帛者以鉅萬 計院守一新 煥然宏敞 自住十餘年 不畜長物 丈室翛然 惟經卷藥爐而已 領衆半百 夏則講經 冬則坐禪 四事無虧 凡蔬糲麁弊 與衆共甘苦 一日 世祖醞酣 急召院 住持問曰 予位尊一國飮酒食肉 違佛慈悲 卿意何如 對曰 深達戒性無持犯也 上悅服歎曰 吾固知住持之爲人也 厚加賚賜 比丘尼之榮 從古迄今 未有如此者 世祖賓天 睿宗以先王之眷 重加護念 睿宗晏駕 今上思祖宗之舊愛 加隆寵 每入禁闈 與大王大妃 王大妃 仁粹王妃 王妃殿下 及諸嬪御後宮 評論佛教 大妃深服之 大王大妃 親自奉茶 殊不以世情 惶惕益勸 擁護正法 禁中尤加篤敬 而未嘗以榮寵自滿 深究佛法 與道舊聞討一乘 而尤業向禪門 每話 到極處 則精研細嚼 乃癈寢忘食 其蕭然一道人也 乃作頌曰 捨香閨兮向空門 斷雲鬢兮投 緇髡 敷猊座兮入天閽 唾噴碎兮瑤琨 居丈室兮牖迷昏 士女爭先兮駿奔 續佛命兮沐天 恩慧光生兮福彌繁偉哉 正菴眞末山之嫡孫 成化 辛卯 臘望 山人 雪岑 謹頌

## ▌부록② 〈定菴道人實蹟讚并引〉

釋迦老人 向生死海 布大羅網 撈摝群生 不問貴賤賢愚男女 信受之者 皆能相應 而相應底一段大事光明大用皆是 衆生本分非是挨拶 將來强爲之事耳 故得此機者 四掇蹋地 種田博飯而已 故黃面老爺 謂須菩提曰 我於阿耨菩提 無有小法可得 是名阿耨菩提 定菴道人向此機關 掀飜一擲 向女流中 挺出拈無柄 鐵鎚撞破重關 研法華妙義 親抵其閫 其行止語言有可模範 非他女流之比也 定菴諱妙法 俗姓丘氏 小有志氣 不慕世榮 旣落髡爲尼參本分宗師究本分 事其遊山翫水 與王公貴戚禪林耆舊 談話必以實地消息直指 其餘權宜之說則蔑聞也 謂義嬪曰 圓明淸淨一輪月 無始却來在此心 欲識大宗眞住處 趙州無字不離心 讚摩訶云摩訶妙體無新舊 包括三千與大千 生死妄情元不屬 靈明長劫照無邊 訪金剛山 到菩提津云菩提自性元無定 隨處靑黃妙莫談 行到金剛山下路 菩提水色碧如藍 斷髮嶺云 斷髮嶺頭回首望 靈山一會尙分明 萬千法起如林會 晝夜常談般若經 示衆云 淸凉心月如能見 生死輪迴那肯隨 欲識寒光無限景 梧桐一葉報天秋 爲太宗普說曰 太宗大王仙駕 正是大權菩薩化身也願度衆生作朝鮮 國王智慧明朗徧照昏迷 四方歸化五十六年 脫棄色身 湛然無形 闔國悲哀如失日月光明 豈非法王化身也 雖然 如是古人云 恐君渾忘却 方便再提撕 山僧今日 未免拖泥帶水去也 太宗大王仙駕 爲首去界亡魂 諦聽諦觀 此地水火風幻身 四大各歸其處 只這歷歷孤明 勿形段者 萬古長靈 淸淨如日 與佛無殊 不生不滅 在聖在凡 添減絲毫不得 所以泥蓮河畔 槨示雙趺 熊耳峯前 手携隻履 太宗大王仙駕 泊法界亡靈 還會此長靈的一物麽若也會得 任他快恬 若也不會 更聽重下注脚 良久云 欲識長靈眞面目 雲在靑天月滿江 這師姑有如此寤語 皷弄人家男女不少 將見殺盡法界迷輸也 其弟子淨業院住持海敏 以余能言倩余作讚并得二三散語錄之 他日有箇具眼漢 開卷而一覽 必知定菴爲定菴 弟子海敏之爲海敏而賞我罰我 必由於是文也 道人鄕貫衿川 正統己巳三月初八日 示微疾沐浴更衣 寂然而逝 壽七十六 法臘四十四 門人淨業院住持海敏拾遺骨 作方墳葬于水鍾之西麓 作讚曰一氣斡化兮 萬物爲銅 模範萬類兮 紛糅不同 拔萃起群兮 千載罕逢 撥沙淘金兮 擘海得珠 換骨靈方兮 肘後之符 得之用之兮 保之實難 靈源混洞兮 接足槃珊 荊棘漫天兮 道路間關 我嘆道人兮 大肚寬腸 一箭落鵰兮 靑冥渺茫 我拊我缶兮 恰恰洋洋 慰定菴平生法味之淸狂 成化 辛卯 冬十月 吉日 比丘 雪岑 淸寒子 與沐 謹讚

## ▮ 참고문헌


### 1.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梅月堂詩四遊錄』(청구기호: 한古朝45-2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필사본『梅月堂集』(청구기호: 奎7062-v.1-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편,『梅月堂全集』, 성균관대, 1973.
세종대왕기념사업회,『국역 매월당집』1~5, 1977-1980.
일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 소장, 필사본『梅月堂集』(청구기호: 318-0171).
연세대 도서관 소장, 필사본『梅月堂詩集』(청구기호: 고서(1) 811.19 김시습 매-필-1~5).
연세대 도서관 소장, 목활자본『梅月堂詩藁』(청구기호: 고서(1) 811.19 김시습 매-목).
이우성 편,『매월당집』상·중·하, 아세아문화사, 1995.
한국고전번역원 DB.

### 2. 논저

강창규,「매월당 김시습의「감흥시 11수」연구」,『한국문학논총』90, 한국문학회, 2022, 5-38면.
김풍기,「조선 초기 문명사의 전환과 김시습의 〈유금오록(遊金鰲錄)〉」,『한민족문화연구』62, 한민족문화학회, 2018, 75-104면.
金 烋,『海東文獻總錄』, 學文閣, 1969.
박철상,「을해자본『매월당집』잔편 발굴의 의미」,『문헌과해석』27, 문헌과해석사, 2004, 215-235면.
_____,「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매월당시고(梅月堂詩藁)』에 대하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문헌총서 3『梅月堂詩藁』, 계명대 출판부, 2008, 83-85면.
박학래,「『海東文獻總錄』과 敬窩 金烋」,『민족문화연구』5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9, 227-248면.
송석하,「書物同好會會報」14, 書物同好會, 1941, 1-5면.
심경호,『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3.
양승민,「경진자본『梅月堂集』간행 과정과 校訂本」,『한국한문학연구』52, 한국한문학회, 2013, 457-495면.
차충환,「일본 내각문고 소장 寫本『梅月堂集』소개 및 고찰—『林泉佳話』소개를 중심으로」,『2022년 한국한문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22년 한국한문학회 동계학술대회(성균관대 국제관), 2023.
_____,「김시습의『林泉佳話』연구」,『한국한문학연구』87, 한국한문학회, 2023, 99-140면.
탁효정,「조선 전기 정업원(淨業院)의 성격과 역대 주지」,『여성과 역사』22, 한국여성사학회, 2015, 101-132면.
황인규,「조선 전기 정업원과 비구니 주지」,『한국불교학』51, 한국불교학회, 2008, 103-130면.

【Abstract】

## The Literary Character and Status of the Manuscript *Maewoldangjip* in the Collection of the Japanese Naikaku Library

Cha, Chung-hwan*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literary character and status of the manuscript *Maewoldangjip* 梅月堂集, one of the collections of Japanese Naikaku Library 內閣文庫.

Naikaku Library version *Maewoldangjip* is a complete collection of poems, prose collections, special collections, and travelogues. Judging from the seal stamped on the book, it is estimated that the *Maewoldangjip* entered Shoheizaka Academy 昌平坂學問所 in Japan in the late 18th or early 19th century. Naikaku Library version *Maewoldangjip* is a copy of Eulhaeja 乙亥字 version *Maewoldangjip*. And Gyungjinja 庚辰字 version *Maewoldangjip* is based on Naikaku Library version *Maewoldangjip*. Naikaku Library version *Maewoldangjip* lets us know the composition and contents of Eulhaeja 乙亥字 version, of which only a part remains.

The *Yurok* (遊錄, travelogue) included in Naikaku Library version *Maewoldangjip* is very important in that it shows the appearance of the early works. The *Yurok* contain many works presumed to be original and created by the poet. *Gamheung poetry* 感興詩 was originally 13 works, not 11 works. The editors excluded 2 works when making Gyungjinja version *Maewoldangjip*. The original 13 works well show Kim Si-seup's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reality consciousness at the time of 1465. At that time, Kim Si-seup acknowledged the reality of the reign of King Sejo. However, he showed a strong sense of hostility toward the servants close to King Sejo.

Naikaku Library version *Maewoldangjip* contain works that record the life of a buddhist nun. In addition, *Imcheongahwa* 林泉佳話, which had been recorded only in the list, is also inserted. These are things that have been excluded from Kim Si-seup's research. As such, the works newly identified in Naikaku Library version *Maewoldangjip* are important data for a new understanding of Kim Si-seup in relation to Buddhism.

Keywords: Kim Si-seup, Naikaku Library version Maewoldangjip, Eulhaeja version Maewoldangjip, Gyungjinja version Maewoldangjip, The literary character, Gamheung poetry, King Sejo, Imcheongahwa.

접수일: 2023.03.31. ‖ 심사일: 2023.04.17. ‖ 게재확정일: 2023.05.20.

*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hee Univ.